

# 북

Books

## “한국은 ‘읽기혁명’ 없어 문화 퇴보”

### 읽기의 역사

스티븐 로저 피셔 지음

우리 일상은 ‘읽기의 과정’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문자든 기호든 상관없이, 현대에 와서는 읽기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읽기를 하면서도 그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폴리네시아 언어 및 문학연구소’ 소장인 스티븐 로저 피셔의 ‘읽기의 역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읽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읽기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읽기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언어학자인 저자는 뼈기문자를 사용하던 고대부터 전자부호를 읽어내는 현대까지 읽기의 역사를 일

별한다. 구어 전통이 강하게 ‘파피루스 협’의 시대부터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양피지 눈’의 시대, 그리고 인쇄술을 통해 읽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종이인쇄’의 시대 등으로 나눠 장구한 역사를 살펴본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중세 시대에만 해도 책은 너무 귀해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었다. 12세기 한 대수도원장은 성경 한 부를 사는데 당시 집 한 채 값인 20마르크를 냈으며, 금전 대여업자들은 책을 담보물로 받기도 했다.

르네상스 때는 책을 훔치면 말이나 가축을 훔쳤을 때처럼 보통은 사형에 처했으며 이 시대 수많은 책

표지에는 ‘내 귀한 책을 훔치는 도적놈은 기사든 노예든 목을 치리리’라는 살벌한 경고문이 쓰여 있었다.

책에는 한국과 중국이 일찍이 뛰어난 인쇄문화를 가졌지만 인쇄술의 혜택이 지배층에 국한되고 대량 보급되지 못하면서 근현대에 서양에 문화적으로 뒤쳐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엄격한 계급제도에 밭과 잡힌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더 인쇄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유럽에서 ‘읽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금속활자인쇄술과 이를 활용한 자본주의의 기반이 서로 상생했기 때문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이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으로 읽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읽기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읽기의 대상인 언어의 종류가 문자언어에서 다양한 시각언어로 확대되기도 했다. 컴퓨터 채팅과 문자메시지는 일상 대화까지 기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읽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읽기를 통한 효율적 정보관리만이 그 최종 목표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며 “지금 인류는 언어의 한계, 시공간을 뛰어넘고자 이 놀라운 초작 ‘읽기’에 기대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록의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이 기록을 각국이 번역해서 읽고 있다며 이러한 획일적인 현상에 대해 “인종·언어적 다양성은 끝나고 세계적 단일문화가 시작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책은 저자의 전작 ‘언어의 역사’ ‘쓰기의 역사’에 이은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며 ‘쓰기의 역사’는 지난해 ‘문자의 역사’(21세기북스 펴냄)라는 제

이집트의 유명한 필경사 아멘호텝이 파피루스 두루미리를 읽고 있는 모습. 이 조각은 기원전 14세기 작품이다.



이집트의 유명한 필경사 아멘호텝이 파피루스 두루미리를 읽고 있는 모습. 이 조각은 기원전 14세기 작품이다.

독으로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이번 책의 원제는 ‘A History of Reading’.

〈지역사·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자 때문에 일기 쓰는 여자=광고 회사 간부로 성공한 뒤 소설가로 전향한 로빈 하딩의 데뷔작, 시애틀의 광고회사에 다니는 삼십대 드신녀 케리가 인생에서 가장 굵직적인 순간을 기억해 일기장에 기록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소설이다. 연애 때문에 겪은 죄악의 순간을 따돌려 적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간다. <민음인·1만3500원>



▲재미있는 섹스사전=‘과다성욕’ ‘마조히즘’ ‘카마수트리’ 등 성에 관한 700여 개의 개념어를 사전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 개념어는 구전과 고전, 정사와 야사, 세태 고발에서 성답문, 활색잡지부터 학술문헌에 이르기까지 흥미롭고 다양한 자료에서 축출했다. 엮은 이 강준막씨는 주택가에서 학교 주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즐비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성에 대한 표현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국 사회에 이중성을 꼬집는다. <북카라반·1만7000원>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건축가 이일운씨의 생태 환경 애세이집. “숲은 행복을 주지만 불편이 따르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인간의 눈으로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이 자칫 많은 오류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녹색 성장’보다는 ‘녹색 철학’이며 ‘편하게만, 안에서만, 즐거워서만’ 살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사유의 체계에서 벗어나 ‘불편하게, 밖에서, 끌려 살기’를 실천해 보라고 조언한다. <사문난적·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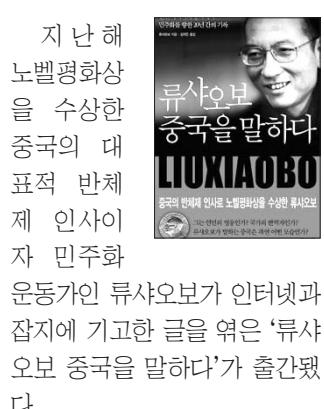


▲아름다움이란 이름의 편견=미국 법 윤리의 권위자인 데버러 로우드 스판퍼드 법대 교수가 아름다움이란 편견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해 온 내력을 짜여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저자는 “아름다움이란 한 껌쯤에 불과한데 이를 위한 대가는 깊고 두텁다”며 “장애 성 인종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고 이를 정치적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가북스·1만5000원>



▲지식 in 상식=‘최후의 만찬은 마굿간에서 그려졌다?’ ‘사막에도 폭설이 내린다’ 등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기상천외한 지식들을 소개했다. 재미교포 풀암씨가 인류 문화사를 품명, 역사 속 인물, 발견과 발명, 인체, 자연생물 등 7가지 분야로 나눠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했다. <평단·1만3000원>

류샤오보가 파헤친  
中 암울한 정치상황



류샤오보는 글을 통해 중국 근대사부터 지금까지의 암울한 정치 상황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대다수 중국인들의 패배주의적 사고방식과 냉소주의식 사회 분위기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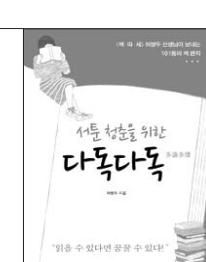
1~4장에서는 중국의 정치와 사회, 문화에 걸린 절망적 분위기를 비판하고 중국인들의 각성을 위한 그의 진실을 담았다. 5장에는 아래 내용에 바치는 시와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담긴 여러 편의 자작시를 수록했다.

〈지식갤러리·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서툰 청춘을 위한 다독다독

허병두 지음



청소년들을 위한 책읽기 가이드북 ‘서툰 청춘을 위한 다독다독’이 나왔다.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책·파·세’의 대표 등으로 활동중인 현직교사 허병두씨가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서”라며 중·고생이 읽으면 좋은 책 101권을 소개한다.

책은 일반적인 책읽기 가이드북과는 사뭇 다르다. 오랜 세월 혼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의 고민과 꿈, 갈등과 희망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서툰 청춘’에게 위

### 꿈 이루려면 이 책만은 꼭 읽어야라

꿈 이루려면

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책 제목 ‘다독다독’은 다(多·많을 다), 독(讀·읽을 독), 도(讀·편지 독)으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책으로 대신 전하는 각각의 편지와도 같음을 뜻한다.

저자는 만화, 동화책, 과학, 예술 등 온갖 형태와 경계를 넘나들며 숨겨 있던 좋은 책을 고르고 골랐다. 또한 상대적 나이도와 책의 속성에 따라 또한 번역내 누구나 쉬운 책에서 어려운 책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생소한 분야까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눈술준비용 서적으로 알고 읽는 건 금물. 저자는 “입시 위주의 독서 교육이 학생들의 책읽기를 막고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 책을 읽고 많이 느끼면서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는 독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고 주장한다.

〈청어림미디어·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 다양한 책들이 추천됐다.

누구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뻔한 고전이 아닌 현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들이어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추천된 책 모두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함께 공생하는 법, 꿈을 찾고 이를 수 있는 마음 자세 등을 제시하는 주옥같은 것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눈술준비용 서적으로 알고 읽는 건 금물. 저자는 “입시 위주의 독서 교육이 학생들의 책읽기를 막고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 책을 읽고 많이 느끼면서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는 독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고 주장한다.

▲나는 왜 어제보다 불행한가=‘행복론’의 인기강사이자 비즈니스 멘토인 스리쿠마 라오 박사가 진정한 행복에 대한 현실적 조언들을 들려준다. 그는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무조건 행복하라’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같은 조건 없는 행복론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얻어야 하거나, 해야한다거나, 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며 행복은 이미 내안에 내재된 DNA같은 존재라고 설명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000원>

▲공병호의 대한민국 기업흥망사-실패의 역사에서 배우는 100년 기업의 조건=경제전문가 공병호씨가 재벌기업들의 뼈아픈 몰락의 역사를 추적하고, 내일을 위한 교훈을 제시한다. IMF 직전까지 한국 경제를 주름잡았던 20대 재벌기업들의 영광과 좌절, 부상과 몰락 등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기업의 생존을 가로막는 7가지 함정을 살펴본다. <해냄·1만3800원>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 국제보청기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매장안내 ★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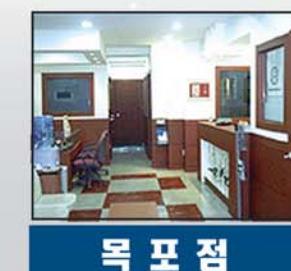
본점 ☎ 062)227-9940/225-9940



충장점 ☎ 062)227-9970



순천점 ☎ 061)752-9940



목포점 ☎ 061)262-9200

